

한국미래포럼 이사장에 피종진 목사 취임

‘기독교운동 활성화, 이단과 무신론 배격’ 선언



사)한국미래포럼의 신임 이사장에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가 취임했다. 한국미래포럼은 지난 15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제200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및 이사장 취임예배를 드리고, 한반도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제1부 예배는 공동회장 김성영 목사(성결대 전 총장)의 사회로 공동회장 박경진 장로의 기도에 이어 한기총 총회장 이우규 목사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능력있는 사명자”란 주제의 말씀에서 “기적이 기만하고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생각

나며,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재상이 생각한다”며 “우리는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세상을 선도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취임하는 피종진 목사님은 이 모든 일에 가장 적합한 사명자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공동회장 김우신 장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상임 부이사장 김원태 장로가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위하여’, 공동회장 홍기수 장로가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도를 인도했다.

제2부 이사장 추대식은 상임회장 김준규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사장 추대패 전달에 이어 피종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다음의 7가지를 약속했다. 피 목사는 △기독교운동을 활성화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룩할 것 △이단과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단호히 배격할 것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안티기독교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할 것 △세계복음선교에 한국과 한국교회가 선두에 서도록 할 것 △소외된 자들을 돕는 사업을 활성화 할 것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한기총 총회장 지덕 목사가 격려사, 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CTS 사장 구본홍 장로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CTS 구본홍 사장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미래포럼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려 하는 등 미래가 불안정한 지금이야말로 한국미래포럼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미래포럼은 지난 2008년 6월 창립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천만명 서명운동, 사회법 제개정 촉구, 북한 옥수수보내기 운동, 평화통일을 위한 철조망 기도회, 남북자 송환 촉구운동,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기원 국민기도회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목소리를 내왔다.

초점/한·일교회 교류협력

이정의 목사 // 한복합 부회장, 신촌성결교회 담임



한·일교회 교류와 협력증진 방안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특히 오늘 한일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증진을 논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입니다.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입니다. 국가 간 거리가 1시간 거리입니다.

양국 사이에는 문화나 역사나 인적조건도 가장 유사한 국가입니다. 또한 양국의 기독교는 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라는 동질의 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교회라는 동질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일 교회는 지금까지도 많은 교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국 기독교간에 활발한 교류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례적인 교류입니다. 지금까지 한일 기독교간의 교류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정기적 만남이라는 말은 깊은 교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정기적

인 교류로 발전시킨다면 양국 기독교간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류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동안 일본 기독교는 한국교회의 기구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관계를 증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일입니다.

지난번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 때 한국교회와도 왔던 일이 한 가지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복된 일입니다.

한일 양국의 교회가 돈독한 관계의 증진을 이루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서로 격려하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시적인 방안입니다.

한일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도 시원스럽게 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 기독교의 만남에서 매년 나오는 말이 지난 역사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언급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을 흔쾌하게 열고 교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년 사과한다는 말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차제에 일본 기독교에서 이 역사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수는 없는 일인지, 이 일을 일본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일본 국내사정은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극우적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정권 때 시뮬레이션 내용까지 부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독교계가 나서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일본 기독교계가 기독교적 역사인식을 가지고 강하게 정부에 요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 그리고 이제는 이 과거문제는 떨쳐 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자 하고 선언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일 간의 모든 분야의 교류 증진은 이 지점에서 급진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영도력을!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온 국민의 경축 속에 26일 거행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새 정부가 과연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성을 실천하고 비합리적인 시대적 선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반신반의의 태세로 그 출범을 바라보고 있음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감지되고 있다. 현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북한 집단의 핵실험 도발과 국내외 경제 난국, 과도한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 종북 좌익세력의 엄존하는 위협-등 마치 십자포화의 외중에 놓여 있는 듯한 난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솔로몬 왕이 나이 불과 20세에 왕위를 계승하여 왕권수행의 한계를 통감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며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분별력의 지혜를 구했고, 신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성경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새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요긴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세례요인의 개신교 신앙경력을 밝힌 바 있고, 최근 당선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난 석상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있어,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새 정부 아래서도 청와대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끊이지 않기를 한국

교회는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박 대통령 앞에 놓인 화급한 국정 요목들을 본다면 당장에 북핵(北核)에 대응하여 국방안보·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 재야 일각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핵개발 추진전략 천명 여부, 한·미 전략적 2015 이권의 무기연구 문제, 한미연합사의 계속 유지 문제, 2,888억 원이나 삭감된 국방비의 증액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 문제, 중국에 대한 북한 비호 일방 외교 지양 설득 추진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5년간 13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배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복지공약 재원조달문제 및 이로 인한 공약 수정 여부, 민생안정과 청년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대책의 수립문제, 북한인권 탄압과 북핵 위협에 사실상 동조하고 반국가적 시위와 사회불안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대응책 등 등 난마처럼 얽힌 국정 아젠다가 목전에 가로놓여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거듭 박근혜 정부가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영도력을 발휘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워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WCC총회 철회, 이종행위자 각성 촉구

국내 215개 교단 및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7개 기독교교단 및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협의회)는 2월 16일 도하 일간지에 “WCC의 정체를 밝히며 이종행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WCC 부산 총회개회를 강행하려는 측은 NCCCK에 가입하고 있는 기장, 기장, 예장통합, 기하성서대문 및 여의도순복음측, 한국기독교, 성공회, 복음교회, 한국장교회, 한국기독교 등 한국교회의 일부 교단과 단체일 뿐 대다수 한국교회 교단과 단체는 개회를 반대하고 있음”과 “침여를 말하고 있는 교단에 속한 교직자들과 교인들 중에서도 WCC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교단 대표자들의 결정과 처신에 반대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WCC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단체이며 ‘교회협의회’라고 하기보다 ‘종교협의회’라는 명칭이 합당하다고 지적, 정통교회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차제에 명칭을 바꾸어주시기를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한 “교인들 앞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이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소위 교계의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가입하는 교계의 지도급 인사들은 이중적인 언행으로 신자들을 미혹하지 말고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7개 교단연합기구의 지적을 전폭 지지하며, 한국교회는 금후 WCC를 잡다한 ‘종교협의회’로 명명할 것과, WCC 가입자들에게 대해 정통 기독교의 배교자들로 엄중분책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 (도로명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하나님의성회 2013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3년도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논문게획서제출 : 2012년 10월 11일(목)까지
- * 논문완성본제출 : 2012년 12월 31일(월)까지
- * 논문심사 : 2013년 1월 15일(화)
- * 목사고시 : 2013년 2월 25일(월)~26일(화) 2일간
- * 목사고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총회본부
- * 목사고시료 : 50만원(고시로 40만원, 논문심사비 10만원)

- * 목사고시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준용, 헌법시행규칙 제13조 준용
- * 목 사 고 시 과 목
 - ① 구약학 ② 신약학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목회행정학 ⑥ 목회 윤리학
 - ⑦ 헌법 ⑧ 기독교교육 ⑨ 교회성장학 ⑩ 면접 ⑪ 설교 실기(5분)
- * 서류 및 논문 제출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19458 조용목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인찬 고시위원장 목사 류기서
총무 목사 김홍성 고시위원회의기 목사 이영성